EWB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Weekly Report
from Burkina Faso

작성자: 신주용 간사

2015년 5 월 2 주차

이번 주의 한마디

"웃는 얼굴"

1. 주간 중요 업무

날 짜	내 용
2015.05.11	출장 논의 및 Serge 방문
2015.05.12	출장 예산 및 코이카 방문 일정 논의
2015.05.13	코이카 방문 관련 op들과 일정 논의
2015.05.14	공휴일
2015.05.15	아나톨 회장님 ppt 연습 및 비자 발급 준비

2. 활동 사진 공유

쫄딱 젖음

한인교회에서 한식 진수성찬:)

3.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기타사항

- 낮에 많은 곳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여, 오후에는 늘 정전이 되었다. APENF에 있는 발전기도 계속 멈춰서, 일찍 퇴근을 해야만 했다.

- 함께 일하는 APENF 코디네이터 Moctar의 가정에 위로를 전한다. Mes condolences.

4. 주간 활동 평가 및 느낀 점

APENF 직원들이 계속 자리를 비우며, 일들이 계속 밀렸고, 이번 주는 많은 일들이 추가되었다. 일은 늘었는데, 함께 일해야 하는 Moctar의 갑작스런 부재로, 혼자 일을 처리해보았다. 긴장되고,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했으나, op들은 내 설명을 잘 이해해주었고, 최선을 다해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해주었다. 저번 연수 때, 함께 수업을 듣고, 식사를 하고, 대화하며 빨리 친해져서인지, 긴장했던 것과 다르게 통화가 편하였다. 자주 OP들에게 전화로 안부 인사를 해야겠다.

월요일은 Serge가 방문하였다. 주한부르키나파소 명예 영사 개관과 EWB의 8주년을 축하하는 영상 메시지를 녹화하기 위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저번 주 사무실에서 외롭게 일했기에, Serge의 방문이 정말 반가웠다. Serge는 많이 긴장하며, 준비한 종이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리허설도 했다. 처음 찍었던 영상은 500MB가 넘어서 전송하기 어렵기에, 내용을 줄이고, 말을 조금 빨리하여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결과는 300MB가 넘었다. 인터넷 상태와 정전으로 보내기에 무리가 있었지만, 긴장하며 재촬영한 Serge에게 다시 부탁할 수가 없었다. 촬영을 마치고, 일에 관해, 부르키나파소 생활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월요일 Serge의 방문으로 일주일을 밝게 시작할 수가 있었다. Serge의 조언 중 "늘 그렇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대화하면 이곳에서의 1년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을 거야."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 미처리된 일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위로와 큰 조언이 되었다.

금요일은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어서, 오후까지 업무를 마치고, 밀린 집안일을 해결한 후, 산책을 하러 나갔다. 10분쯤 걸었을 때, 비가 조금 왔는데, 그칠 것 같아 계속 걸었다. 그러다 폭우가 내렸다! 폭우가 내리기 전, 드물었던 인적과 차는 아예 사라지고, 시야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말 그대로 쫄딱 젖어있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내리던 비는 저녁이 돼서야 그쳤다. 정말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다.